



# 초록 기억 안고 광섬유 숲 지나면 마음의 풍경



제27회 제주청년작가전 문예회관서 3인 초대전 강태환·김현수·현유정 설치·평면·영상 작업 등

기억 속 초록의 나무, 빛이 빛어낸 숲을 지나면 오늘날 청춘의 마음에 닿게 된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제주도문화예술훈원 제27회 제주청년작가전이다.

도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문예회관 전시실 3곳을 각각 채우고 있는 이들은 올해 청년작가로 선정된 강태환(입체·설치), 김현수(평면), 현유정(미디어)작가 (한라일보 5월 28일자 13면)다.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 살며 6개월 이상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작가를 대상

으로 공모를 거쳐 선발했다. 2021년 제주청년작가 3인은 저마다 다른 방식, 내용을 담은 신작을 위주로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다.

1전시실에 작품을 내건 김현수는 유년 시절 제주 자연과 마주하며 온몸으로 체득했던 푸르고 짙은 녹색을 장지에 채색으로 풀어냈다. “제주 풍경을 재현하려는 것이 아닌 자연으로 내뿜어진 시선을 표현”한 작업이다. ‘해바라기 정원’의 낮과 밤이 다르고, ‘서있는 못’과 ‘기다리는 연못’이 있다. ‘찰나의 영원’, ‘나를 스쳐가는 것들’, ‘머물던 자리에서’ 등 제주 자연은 어제와 오늘, 타자와 나, 시간과 공간을 오가며 내면의 흔적을 비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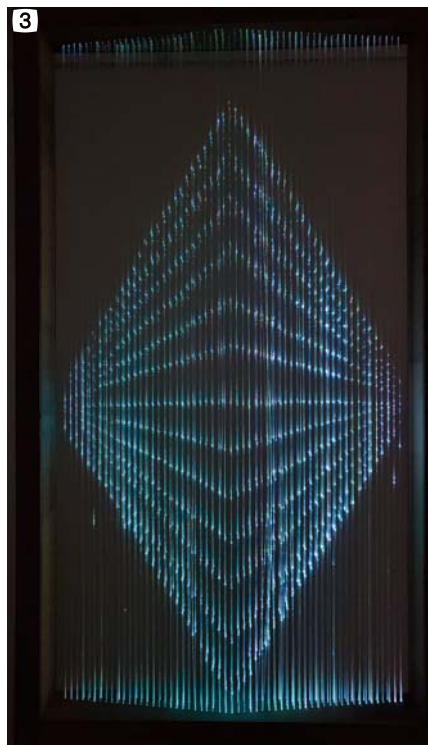
2전시실에 설치된 강태환의 작품은 광섬유를 재료로 했다. 비처럼, 숲처럼 전장에서 바다로 길게 늘어져 또 다른 공간을 빚어낸 작업과 함께



네모난 틀 안에 놓인 ‘모나드(Monad)’ 연작을 전시했다. 강 작가는 작업 노트에서 “동시대의 도시화되어가는 인공적인 배경 역시 자연적 현상(숲도 자연이고, 건물도 자연이)이 아닐까”라며 “자연과 문화 사이의 경계를 흐리며 리얼리티를 구축하고” 있는 변화의 모습에 주목했다.

현유정은 ‘들어다본 시간들’이란 주제 아래 3전시실에서 애니메이션 작업 등을 펼쳐놓고 있다. ‘마음과 마음’, ‘서로의 조각’, ‘어딘가에, 숲’, ‘드림러(Dreamer)’ 등 그의 작업은 일상이나 가족에서 동기를 얻은 것들이다. 여성의 관점으로 연애라는 ‘프레임’을 짚어보고, 아빠를 통해 가정의 무게를 떠올렸다.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와 더불어 관람자의 드로잉이 쌓이며 마지막 날에 영상 작품 한 편을 완성하는 참여형 전시 코너를 봤다.

전시는 이달 23일까지. 문의 710-7633. 전선회기자



1. 김현수의 '기다리는 연못' 2. 현유정의 '서로의 조각' 3. 강태환의 '모나드(Monad) #01'

# 삶의 근원 찾아 들고 돌아온 제주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전시 미공개 '회귀' 시리즈 14점 기획전 '에콜 드 파리...'도



김창열의 '회귀' (2003)

‘물방울 작가’ 김창열(1929-2021). 45년간 이국 생활을 했고 저지문화에 숭인마를 내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조성을 계기로 제주가 최종 정착지가 되었다. 김창열 작품으로 매년 다른 소장품전을 열어온 김창열미술관이 이번에는 ‘회귀’ 시리즈를 준비했다. 이달 14일부터 시작되는 ‘회귀’의 품, 제주’전에서 그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이 전시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제작한 14점으로 구성됐다. 한결 같이 ‘회귀’라는 제목을 단 이들 소장품은 2016년 9월 김창열미술관 개관 이후 처음 전시되는 것들이다.

김창열은 80년대 중반부터 천자문을 배경으로 한 물방울 시리즈를 작업했다. 이 시기는 작가가 삶의 근원에 대한 고민을 하던 때로 한지나 천자문 사용 등으로 그 결과물을 드러냈다. 천자문 시리즈는 김창열 물방울 작품의 본령으로 평가된다. 작가는 천자문으로 상징되는 동양의 철학과 정신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유의 장을 만들어냈다.

전시는 11월 28일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 관람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일부터는 김창열미술관 기획전 ‘에콜 드 파리의 거장들’이 열리고 있다. 1972년 파리 살롱 드 메에 ‘밤의 행사(Event of Night)’를 출품하며 유럽 화단에 본격적으로 데뷔했던 김창열과 파리의 인연에 주목한 전시다.

이 기획전에서는 파리 진출을 통해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한 ‘한국현대미술의 거장’을 만날 수 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적 작가로 꼽히는 김환기, 현대적인 추상적 표현을 보여준 남관, 전통예술이 지닌 깊은 미감을 바탕으로 서구 예술을 정면으로 응시했던 이응노를 포함 4인의 작품 14점을 펼쳐놓았다. ‘에콜 드 파리의 거장들’은 11월 21일까지 이어진다.

전선회기자

# 현악앙상블이 빚어낸 가을빛 서정

김정문화회관의 '토토콜' 제주체임버 네 번째 무대

서귀포시에 있는 공공 공연장인 김정문화회관이 6회 연속 펼치는 '토요일 토요일은 클래식' 아트페스티벌, 이번 주말엔 '오소룩한 음악회'로 꾸며진다.

이달 18일 오후 5시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토요일 토요일은 클래식'의 네 번째 무대로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는 김정문화회관 공연장 상주단체다.

이들은 현악앙상블을 구성해 초가을의 서정을 느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연주곡은 오토 말링의 '피아노 삼중주 A장조', 베토벤의 '피아노 삼중주 5번', 그리고 그의 '현악 사중주 1번', 드보르작의

'현악 사중주 12번',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 A장조' 등이다.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는 제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민간 오케스트라로 임대홍 상임지휘자를 중심으로 전문 현악 연주자들로 구성됐다. 2018년부터 김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관람료 무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을 80명 이내로 제한했다. 입장권 온라인 예약은 이달 13일부터 서귀포시 E-티켓에서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김정문화회관의 '토요일 토요일은 클래식' 시리즈는 앞으로 오퍼레이션앙상블의 '타악기와 썬타다'(9월 25일 오후 5시),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의 '리빙 콘서트'(10월 2일 오후 5시)를 남겨두고 있다. 문의 760-3792. 전선회기자

# 해녀박물관 현장 있는 듯 실감나게

가상현실 온라인 전시 본격 로비·상설전시실·야외 소개

제주도립 해녀박물관이 코로나19 시대에 시간과 장소에 제약 받지 않고 해녀문화유산은 품은 해녀박물관

전시물을 실감나게 만날 수 있는 가상현실(VR) 온라인 전시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주 해녀문화 VR 아카이빙 온라인 전시'는 지난 2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추진하는 '2021년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뤄졌다. 박물관은 소장 유물과 가상현실을 융합해 해녀와 해녀문화의 가치를 콘텐츠로 제작했다.

박물관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접속하면 박물관 곳곳을 실제 둘러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박물관 로비를 시작으로 1전시실 '해녀의 삶', 2전시실 '해녀의 일터', 3전시실 '해녀의 생애', 야외박물관을

따라가며 온라인으로 관람하도록 구성했다. 전시 유물에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 설명, 사진, 영상을 직접 볼 수 있다.

해녀박물관은 2006년 6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문을 열었다. 이보다 앞서 박물관 인근에는 1930년대 제주해녀항일운동의 발상지를 알리는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졌다.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서귀포미술협회 정기전 34명 참여 기담미술관서

서귀포 지역 미술인들이 빚어낸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귀포를 대표하는

미술 단체인 한국미술협회서귀포지부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에 자리 잡은 공립미술관인 기담미술관에서 펼치는 스물두 번째 회원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강경훈 고상을 고순철 고영우 김미령 김형지 김혜숙

박성배 박순민 박용미 선우경애 오민수 현충연 홍승현 등 34명의 회원이 출품한다. '상생의 섬, 서귀포'란 주제 아래 평면, 입체, 서예 등 각기 다른 빛깔의 작품들로 서귀포에서 길어올린 창작물을 펼쳐놓는다.

고순철 지부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작가들이 만들어낸 희망의 에너지가 관객들에게 전달되어 긍정적인 힘을 잃지 않는 서귀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전시"라고 했다. 전선회기자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 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신화역사공원 YG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 회  
귀하는 자조자립 협동의 활동조항  
철신을 표명함으로써 실천하여 소상공민  
협동조합 활성화 및 경제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요협동조합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대형 상가매장

세화카페

우도농협하나로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냉동창고 콘크리트폴리싱

영상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동문 물류센터